

# 동남아시아 전자산업동향 조사 보고서(1)

## 1. 개요

### 동남아시아의 전자산업동향

본고는 일본전자기계공업회(EIA)부품운영 위원회가 한국, 대만, 중국, 홍콩 등 9개 지역에 동남아시아 조사단을 파견하여 각국의 업체, 정부 관계 기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한 「98 해외전자공업 동향 조사보고서」를 본회가 번역 게재한 것임. (편집자)

## 1. 주요경제지표

'97년 7월 태국에서 시작된 통화·금융위기는 그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에서는 특히 심각하여 IMF지원과 병행하여 각종 규제완화 및 구조개혁 등을 단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수출부진, 국유기업의 개혁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고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홍콩의 GDP는 30년만에 마이

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작년 9월이후 대폭적인 통화 하락에 의해 각국 모두 1인당 GDP는 달러 베이스로 대폭 감소하였다. 한편으로는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국가도 있으나, 내수침체로 인해 각국 모두 수출에 고심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홍콩달러, 중국 Yuan화의 평가절하 문제는 당국의 반대입장 선언이 있기는 하지만 엔의 평가절하와 맞물려 예측불허의 상황에 놓여있다.

### < 주요경제지표 >

구 분	연도	한 국	대 만	중 국	홍 콩	태 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인구 (만명)	'96	4,555	2,147	121,389	631	6,010	7,200	2,117	304	19,900
	'97	4,599	2,168	123,626	650	6,050	7,400	2,166	310	20,300
	'98	4,644	2,189	128,000	662	6,110	7,600	2,200	317	20,600
1인당GDP (US \$)	'96	10,548	12,838	679	24,429	2,899	1,121	4,457	26,850	1,115
	'97	9,511	13,233	732	26,362	2,762	1,184	4,303	28,800	944
	'98	7,000	12,567	760~780	25,360	1,801	898	3,390	26,200	253
경제성장률 (%)	'96	7.1	5.7	9.6	5.0	6.2	5.5	8.2	6.9	8.0
	'97	5.5	6.8	8.8	5.2	1.0	5.1	7.8	7.8	4.6
	'98	-1.0	6.2	8.0	-2.0	-5.0	3.0	2.0	2.0	-15.0
물가상승률 (%)	'96	5.0	3.1	8.3	6.0	5.9	8.4	3.6	1.4	7.9
	'97	4.4	0.9	2.8	5.8	5.6	5.1	2.7	2.0	6.6
	'98	9.9	3.0	2.8	5.0	12.0	7.5~8.5	7.0~8.0	2.5	85.0
실업률 (%)	'96	2.0	2.6	3.0	2.8	3.0	8.6	2.6	2.0	4.0
	'97	2.5	2.7	3.1	2.2	3.5	8.7	2.7	1.8	10.0
	'98	6.0	2.6	4.0	4.0	8.0	11.3	4.0	2.5	15.0



## 2. 각국별 동향의 개요

### (1) 한국

- ① IMF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으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회복에는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② 조정단계에 있는 재벌개혁의 전략분야는 전자, 자동차, 중공업, 화학, 건설로 해외생산은 중국에서는 강화하고 ASEAN에서는 일부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③ 경제회생에는 외자도입이 불가피하다. 원의 평가절하, 주가하락으로 기업매수 가격은 작년의 1/4이다.
- ④ 국제경쟁력 있는 전자기기·부품의 생산은 신장되고 임금인하, 원의 평가절하로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었으나, 엔의 평가절하로 일본기업과의 경쟁력은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 ⑤ 통신분야는 외자의 생산기지로써 건투중이다. 정보분야에 있어서는 단말기기는 건투중이나 부품수입의존도가 높은 PC생산은 저조한 상태이다.

### (2) 대만

- ① PC관련 제조업은 아시아 통화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생산대수는 해외생산을 포함해 순조로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PC보급에 따른 가격 하락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② 대만내의 생산은 절정기를 지나 이제는 헤드쿼터의 역할과 소프트웨어산업에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 ③ IC, LED 등의 하이테크 대형투자가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중이다. 관민협업, 민간협업, 수평전개가 활발하다.
- ④ 대만 부품메이커의 일본인 기술자 채용에 의한 경쟁력 상승 움직임이 있다.

### (3) 중국

- ① 고도안정성장을 목표로하는 신경재개혁정책의 실행으로 기업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제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유기업, 행정기구, 금융개혁의 실행으로 실업과 Lay-off가 증가되고 있다.
- ② 인플레이가 진정되어 거시경제가 안정성장의 궤도에 올라서고 있는 가운데, '98년에는 수출의 침체, 투자의 침체, 아시아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중국경기에 후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 ③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침체, 중국 Yuan화의 절상으로 수출이 침체, 원의 절하 실시는 미묘한 문제로 '98년의 조정범위가 수정될 전망이다.
- ④ 기기의 생산대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AV·가전기기는 현

지 메이커를 포함해 과잉생산, 재고증대, 가격하락으로 생산의 신장이 둔화되고 있어 상황의 일변도 예측되고 있다. TV, 냉장고의 생산은 수요의 약 2배, 가격은 1년간 절반 가까이 하락하였다.

- ⑤ 정보통신기기는 본격적인 생산이 기대된다.
- ⑥ 상해포동신구는 경제·무역·금융센터로서 정부 차원의 개발이 진행중이다.
- ⑦ 제도·정책 및 그 운용의 불투명·애매성·지역격차가 큰 운용 등은 큰 부담과 불안감을 주는 재료이다.

### (4) 중국(화남지방: 홍콩+광둥성)

- ① '97년까지의 고성장에 그림자가 비쳐 '98년은 30년만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금융관계를 중심으로 지점의 피해 및 리스트럭처링이 행해지고 있다.
- ② 중국에의 반환열기가 가라앉고 반환후 약 1년이 경과하였으나 정책이나 제도상의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다.
- ③ 기기의 생산대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부품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부품메이커의 수주금액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 ④ 중국 원화 및 홍콩달러의 절상에 의해 통화하락중인 ASEAN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나, 노동

임금 및 현지부품의 코스트는 아직 저렴하여 생산의 이동 등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 (5) 태국

- ① '97.7 아시아 통화위기의 진원지였던 태국은 신정권하에서 금융재정 등의 건전화를 축으로 한 경제재건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경제는 상당히 냉각되어 있다.
- ② 내수침체에 의해 AV기기, 가전, 자동차관련은 생산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침체되어 있다.
- ③ 실제경제의 악화와 바트절하를 배경으로 국내 판매는 20~30%의 적자는 피할 수 없어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 (6) 필리핀

- ① '98.5의 대통령선거도 비교적 평온하게 치러졌으며 마르코스 정권이후 3번 정도의 민주적인 선거가 행해졌다고 하는 의미에서 정치적인 안정은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 ② 폐소절하에 의한 메리트도 있어 일·미 메이커에 의한 FDD, HDD, 반도체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단,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수요침체에 의해 수출확대에는 신중한 견해가 많다.

- ③ 노동자 레벨의 정착율은 좋으나 엔지니어, 관리자급에서는 외자기업의 진출에 의해 Job hopping의 경향도 나오고 있다.
- ④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판매부진에 의한 인원삭감에 대해 스트라이크가 발생하고 있어, 전자업계로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7) 말레이시아

- ① 긴축정책과 통화·금융위기의 영향에 의한 내·외수요의 침체로 '98.1~3의 경제성장율은 마이너스 1.8%이다.('97년에는 7.8%성장)
- ② 경기침체에 의한 노동수급의 완화, RM절하에 의해 수출경쟁력은 증대되고 있다.
- ③ AV기기에서는 고급기종에로의 생산전환이 이루어져 정보·통신관련기기의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 ④ R&D 강화, IPC(국제자재거점)의 구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 ⑤ 멀티미디어 슈퍼코리드(고도정보통신인프라)는 경제침체에 따라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이다.

### (8)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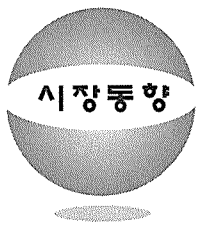
- ① ASEAN의 통화위기와 시장침체, 일본 엔의 절하와 인도네시아의 정치불안 등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업계환경은 대단히 어렵고 리스트럭처링도 예측되는 등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수주에 대해서도 전년을 10%전후로 하회할 것으로 보여진다.

- ② IPO는 세트의 지역별 생산·판매와 리드타임의 단축화경향속에서 부품의 현지조달과 말레이시아에 있어서의 IPO 움직임도 있어 취급금액은 감소경향에 있다.
- ③ PC 및 HDD 등의 주변기기,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가 AV기기를 대신해 정보통신기기의 생산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는 구미 메이커의 진출도 있어 상당한 신장이 기대된다.
- ④ Johore은 인도네시아의 혼란과 말레이시아 통화의 대폭하락에 의해 경쟁력이 상승해 인근 국가에의 재이전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고 일부 제품의 U턴도 기대된다.

### (9) 인도네시아

- ① 폭동이후 신속히 통상조업을 재개하고 밀렸던 생산은 휴일을 반납하여 만회하고 있어 수출기업에서는 혼란의 영향이 거의 없다.
- ② 국가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진출에 브레이크가 걸려 최근 수년간은 현행기업의 생산확대에만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 3. 주요전자기기의 동향

#### (1) 주요기기의 생산동향

'98년 아시아 각국 주요 전자기기의 생산은 경제위기, 통화의 하락을 반영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C-TV, VTR, 가전과 현지 메이커를 포함해 과잉생산, 재고증가,

가격하락의 악순환으로 신장이 둔화되고 있다.

홍콩을 포함한 화남지구도 작년까지의 성장에 그림자가 비쳐 '98년에는 30년만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생산도 저조하다.

또 한국에서는 경제위기의 회복조짐이 보이지 않아 「완치되는데 3~5년」설도 있을 정도로 중증이다.

대만에서는 PC 관련 산업은 호조이지만, 그것도 대만내에서의 생산이라기 보다 중국대륙으로 이전한 업체의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ASEAN의 AV기기는 담보상태이지만, 휴대전화 및 PC주변기기의 HDD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주요전자기기의 생산동향>

(단위 : 천대)

구 분	연도	한 국	대 만	중 국	중국화남지구	태 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C-TV※	'97	9,242	682	25,380	7,470	6,178	1,050	8,067	2,046	4,200
	'98	9,220	630	27,000	7,830	6,546	980	7,840	1,000	2,700
TV.비디오 일체형	'97	1,380		1,300	1,300	1,120		1,965	60	700
	'98	1,380		1,800	1,800	1,340		1,932	0	1,000
비디오※	'97	8,733	436	9,960	6,420	3,988	370	11,623	720	5,450
	'98	7,860	425	10,200	7,680	4,467	200	11,473	0	5,800
스테레오※	'97	1,350	50	23,490	18,240	660	210	18,022	3,540	2,650
	'98	1,200	50	24,500	19,000	710	280	16,355	3,100	3,400
라디오카세트	'97	1,280	50	66,000	44,000		480	3,597		3,100
	'98	900	40	68,000	45,000		300	2,640		3,200
헤드폰 스테레오	'97	1,200	4,899	35,000	28,000	800		8,541		6,500
	'98	840	4,800	37,000	30,000	640		8,400		6,500
휴대전화	'97	8,923	0	6,800	1,560			220	990	
	'98	18,000	30	7,100	840			2,200	1,620	
PC(완성품)	'97	2,396	13,520	2,400	1,000			380	3,810	
	'98	1,900	18,500	3,000	1,200			483	3,900	
HDD	'97	5,322		3,490		13,500	9,000	10,700	54,240	
	'98	6,390		5,180		20,200	15,000	17,200	56,000	
에어콘	'97	1,678	1,596	7,860	470	2,790	240	2,395	450	110
	'98	1,450	1,600	8,100	410	2,940	230	2,625	420	80

· 주1 : ※표시는 사시를 포함

· 주2 : 화남지구(홍콩+광둥성)은 중국에 포함

**(2) IPO와 R&D 기능의 변화**

IPO에 대해서는 홍콩 IPO는 화남지역에서부터 화중, 화북까지를 포함한 중국공장의 공급창구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싱가포르 IPO는 인도네시아, 태국의 공급창구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지조달화의 진전도 있어 점차 그 규모를 축소해 타국으로 기능을 이전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에서는 국제조달센터(IPC:International Procurement Center)가 기능하고 있다. 이것은 물류거점으로써 자재, 제품의 수출입 기능을 갖고, IPC 인가기업은 세계 등의 우대조치를 받고 특히 부품공급거점으로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R&D에 대해서는 싱가폴은

PC관련 등의 하이테크 기기에의 기능 이전이 진전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C-TV, VTR 기기를 중심으로 현지 고용원의 증원, 육성이 진전되어 부품의 교체, 인정, 현지설계까지 담당하는 등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싱가폴과 말레이시아와의 기능분담도 명확해지고 있다.

**4. 주요 전자부품의 동향**

**(1) 일본계 전자부품의 과제**

휴대전화, PC 및 주변기기의 성장이 있지만 AV기기의 생산은 저성장으로 부품수요의 큰 폭의 확대는 기대할 수 없다.

각국 통화하락의 영향도 있어 세트의 수출경쟁력은 상승하고 있지만, 공급이 부품수요를 상회

하고 있는 환경과 부품메이커가 재료 등을 수입하고 있는 점, 환율변동에 걸맞는 가격시정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또 가격시장 과제와 마찬가지로 부품메이커의 대응과제로서 생산의 재배치 및 생산목표의 재편·통합이 종래보다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 로컬부품의 동향**

중국계 전자부품의 위협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으나, 한국과 대만세가 세트메이커에 공세를 가하고 있다. 한국세는 생산능력 유지를 위해 정책적 가격을 무기로 또 대만세는 중국 대륙에서의 생산증강에 의한 중국시장에의 공세가 현저하다.

<전자산업에 있어서의 노동임금('98년)>

(단위:엔/월)

평균 임금	중 국					
	북 경	천 진	상 해	무 석	홍 콩	심 천
다이렉트 노동자	19,400	18,000	22,000	15,600	147,400	17,500

평균 임금	한 국	대 만	태 국		필 리 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방 록	첸마이	마닐라	세 브		
다이렉트 노동자	118,600	156,000	27,700	19,000	18,000	15,000	54,900	104,100

주 : 다이렉트 노동자의 총지불 인건비를 인원수로 나눈것. 참고로 엔으로 환산함.



<일본계 전자부품의 생산이전 현황>

(단위 : %)

품목	한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96년	'97년	'96년	'97년	'96년	'97년	'96년	'97년	'96년	'97년
스피커	20	0	48	45	90	90	28	25	100	100
고정저항기	40	40	21	20	100	100	93	91	70	77
알루미늄 전해콘덴서	73	68	15	15	80	80	98	98	100	100
세라믹 콘덴서	16	10	42	37	100	100	90	90	100	100
트랜스	8	8	5	8	70	60	80	90	100	100
코일	35	35	45	35	80	80	99	90	100	100
콘넥터	23	23	10	9	100	100	90	90	5	10
스위치	0	0	30	23	100	100	100	100	-	-

<주요분야별수주동향(전년동기비)>

(단위 : %)

품목	'98년 (7~9월)					'98년 (10~12월)					'99년 (1월~3월)				
	한국	대만	중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한국	대만	중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한국	대만	중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C-TV	70	93	95	70	100	130	130	100	80	90	200	100	100	80	90
비디오	70	95	95	90	95	130	130	102	90	95	200	98	105	90	95
오디오	50	95	90	100	95	110	110	96	95	95	150	85	100	90	95
전화	70	74	90	100	105	100	100	95	100	100	300	84	98	100	100
P C	50	130	100	90	140	90	90	100	100	130	100	130	100	100	120
사무기기	60	105	100	105	105	100	100	100	100	105	140	95	100	100	105
가전	65	95	95	55	70	70	100	98	65	80	100	115	98	65	80
기타	40	70	80	-	100	80	80	100	-	100	100	65	100	-	100
전체	65	95	95	87	101	115	115	98	90	99	170	97	100	90	98

출처 : <일본 EIAJ 「동남아시아 전자공업동향 보고서」>

한 국

1. 일반개황

- IMF체제하 경제 마이너스 성장-

한국은 금융불안 탈피를 위해 IMF의 금융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재정긴축, 경상수지의 개선 등 경제안정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98년의 경제성장을 3%이내로 할 것을 IMF와 합의하였다.

단,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으로 기업수익의 악화와 기업도산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소비의 냉각과 설비투자의 억제로 인해 1~3월의 실질 성장률은 전년대비 -3.8%로 당초 예상을 초과 하락하였다.

1999년은 1%의 마이너스 성장이 공표되고 있으나, 1/4분기부터 전년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절하를 배경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내수부진과 자금결제의 문제로 수입이 급속히 감소한 결과, 1~4월의 무역수지는 120억불을 초과하는 흑자를 예상하였다.

그러나, 가공무역주체인 한국에 있어서는 재료 등의 수입감소는 금후의 수출에 큰 영향을 마쳐 98년 하반기부터는 수출둔화가 우려된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

이상으로 경제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일련의 개혁이 효과를 나타내 경제가 회복궤도에 오르는데는 최저 3~5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국가 파산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98년 2월 출범하였다.

IMF합의를 완전히 이행한다는 자세를 명확히 하고, 금융시스템 개혁과 재벌개혁에 대응하고 있다.

단, 기업수익의 악화로 수당이나 상여 등이 수정되어 실질적인 임금수준은 하락 경향에 있다.

이러한 임금인하속에 원의 절하를 배경으로 해 수입물가 및 에너지 비용이 상승경향을 보여 소비자물가는 9.9%의 상승이 예측된다.

또한, 정리해고제의 도입 등에 의해 실업률은 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실업률이 10%를 초과하게 되면 신정권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던 국민으로부터의 반발도 우려되어 정책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전자산업의 동향

1) 세트의 생산동향

AV기기

- '97년 후반부터 생산급감

최근 수년간 한국의 AV기기 생산은 수요지에서의 생산과 국제경쟁력의 확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외로의 생산이전에 의해 감소기조에 있었다.

'97년 들어 재벌기업을 포함한 대형도산으로 IMF 관리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AV기기 생산은 급감하고 있다.

영상기기의 감소 요인에는 전년 대비 반감한 내수와 엔저에 의한 일본기업과의 상대적인 수출 경쟁력 저하가 큰 영향을 주었다.

또 수입부품가격의 앙등으로 샤시 카운트의 것이 부품 키트의 현지조달로 변화하고 있어 국내생산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있는 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음향기기는 '90년 전후부터 서바이벌시대를 거치는 동안 국제경쟁력을 이미 상실하고 있어 국내용의 고급기종에 한정되어 있던 것이 더욱 감소하고 있다. 카스테레오도 재벌기업의 도산으로 '97년 후반부터 급감하고 있다.

정보통신기기 - 신장되고 있으나 양극화 경향

AV기기의 공동화를 보완해 정보통신기기가 확대경향에 있는 것은 일반과 공통점이다. 단, 한국은 중요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전자산업의 발전과는 커다란 상위점이 되고 있다.

그러한 점은 이번의 통화변동



에 큰 영향을 받아 부품·재료 수입의존도가 높은 하이테크 제품은 국제경쟁력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열세를 면하기 어려우나, 일부 제품은 아시아 용의 수출 생산기지로서 신장하고 있어 양극화 경향에 있다.

PC산업은 법인 수요주체로 시장규모도 작고 마더보드나 반도체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은 기본적인

로 없다. 단, 단말기기는 건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CD-ROM과 컬러 모니터는 수입의존도가 낮아 원절하에 의한 수출경쟁력을 배경으로 큰폭의 신장이 기대된다.

통신기기에 대해서는 정부 및 기업이 정보기술산업의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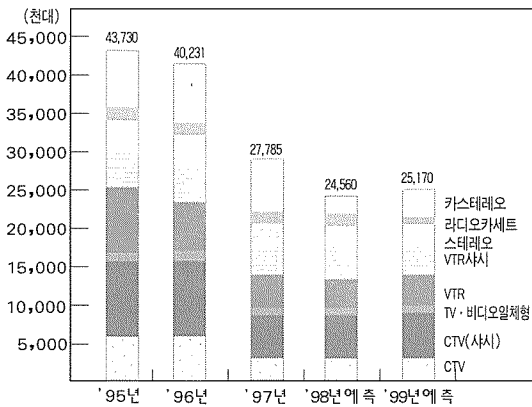
그중에서 코드레스폰은 국제

경쟁력이 저하됐기때문에 해외로 이전되고 있으나 일부 기종은 남아 있다. 휴대폰의 경우는 유럽기업의 아시아 생산기지로써 큰 폭으로 신장되고 있으며, 한국계 기업의 생산도 배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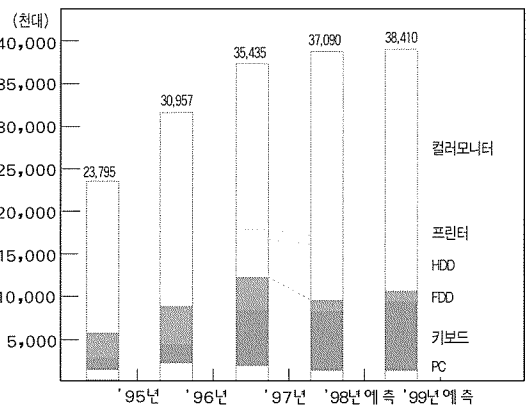
## 2) 전자부품의 생산동향

한국의 부품생산에서 일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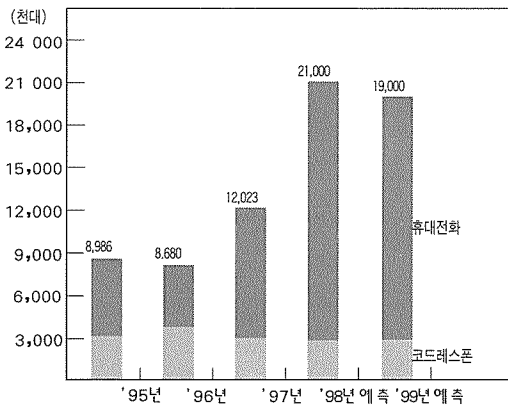
주요 AV기기 생산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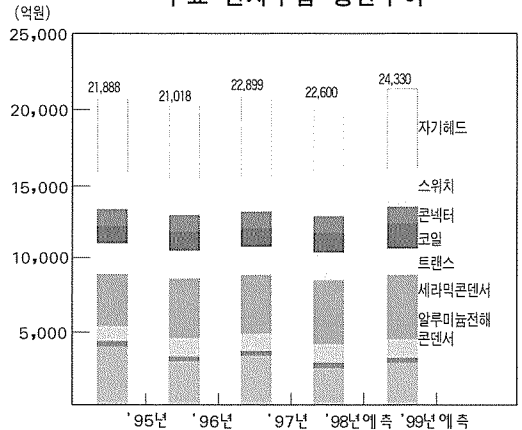
PC주변기기 생산추이



코드레스폰·휴대전화 생산추이



주요 전자부품 생산추이





대 만

1. 일반개황

- 비교적 호조인 대만경제

'97년의 경제성장률은 제조업의 생산증가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의 순조로운 생산과 민간에서의 왕성한 투자 및 소비로 인해 최근 6년간 과거 최고인 6.8%의 성장률을 보여 '96년의 18위의 세계랭킹에서 '97년에는 일거에 6위로 뛰어 올랐다.

'98년에는 당초 예측인 6.5%에서 6.2%로 하향조정되었는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의 금융위기로 인해 아세안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해 상당부분을 내수로 돌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는 「중간규모의 성장, 저실업, 물가억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기타의 주요경제지표는 공업생산이 연 증가율로 4.9%증가, 무역수지는 1억불의 적자, 실업율은 2.5%('98. 1~2월 실적)로 무역은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나 생산은 안정되어 있다.

또 1인당 GNP는 '97년에 비해 약600달러정도 감소하였으나 이는 환율이 연간 베이스로 12.7%하락할 것이라는 이상과 같이 아시아 통화불안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수출은 연간 4%증가를 달성할 수 있을

의 비율이 높은 부품은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고정저항기, 코일로 국내용을 중심으로한 합병 스타일을 취하고 있다.

한국계 부품기업은 비교적 대형 재벌관계가 많아 해외생산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단, 대형 재벌 세트 메이커의 해외진출에 따라 중국, 미국, 아세안으로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약간 수정될 기미가 엿보인다.

즉, 중국에서의 생산을 높이고 아세안에서의 생산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또, 한국내에서의 부품생산은 최근 수년간 호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을 배경으로 신장을 계속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원화 베이스로 담보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환율을 감안하면 달러 베이스로는 큰폭의 감소가 예상되며, 일본계 판매회사의 '98. 4~9월의 부품수주는 전년대비 55~65%수준까지 악화되었다.

부품중에서도 비교적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의 양극화 경향에 있다.

알루미늄전해 콘덴서, 고정저항기, 콘넥터는 증가경향에 있으나, 스피커, 세라믹 콘덴서 등은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부품에 의한 격차 및 기업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경쟁력이 없는 것은 도태될 것

으로 보인다.

주요 재벌기업들은 많은 부품들에 손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정리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시기가 된 것이다.

3. 향후의 과제

구조개혁 및 재벌개혁에 불투명성이 있기는 하지만, 산업정책으로써 어느 정도의 정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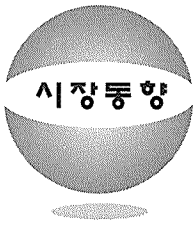
전자산업은 한국에 있어서는 화학, 자동차, 중공업 보다도 우위에 있는 산업이다.

중요부품과 기간기술을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성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국제경쟁력이 톱클래스인 것도 있다.

단, 종래와 같이 많은 분야를 재벌기업이 안고 있는 구조와 작은 시장에서 많은 기업이 결합하는 것은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IMF관리체제하에서는 기업에 대한 보호정책도 수정되어 국제수준의 기업활동이 불가능한 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2~3년간은 재벌간의 사업양도 및 채산이 맞지 않는 상품의 철회 등을 거쳐, 전자산업중에서의 선택 및 집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것으로 보여, 대만경제는 아시아 국가들중 비교적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2. 무역·산업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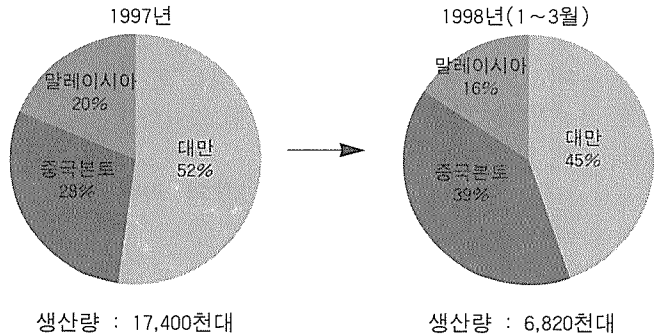
### 1) 국경없는 시대에 들어선 일본과 대만의 무역

일본·대만·중국의 3개 지역 간의 무역수지를 서로 상쇄하면 일본은 30억불 적자, 대만은 8억불의 적자, 중국은 38억불의 흑자가 된다.

무역총액은 1,280억불 (일본·대만: 407억불, 대만·중국: 235억불, 일본·중국: 638억불)로 3개지역간의 무역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무역은 국경없는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통관통계상의 일본·대만간의

### <CD-ROM 생산지 추이>



무역 (일본이 173억불의 흑자) 만을 보고 평가하면, 대일무역적자확대에 대한 불만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PC수요의 하락에 의한 전자관련기기의 수출이 여전히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일수출확대를 위한 활동은 종래 이상으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전략은 ① 일본기업과 연계해 멀티

미디어관련제품의 개발에 노력하고 OEM/ODM 수주 획득. ② 장기적 전략으로서는 일본으로 부터의 투자를 늘리고 수입 대체산업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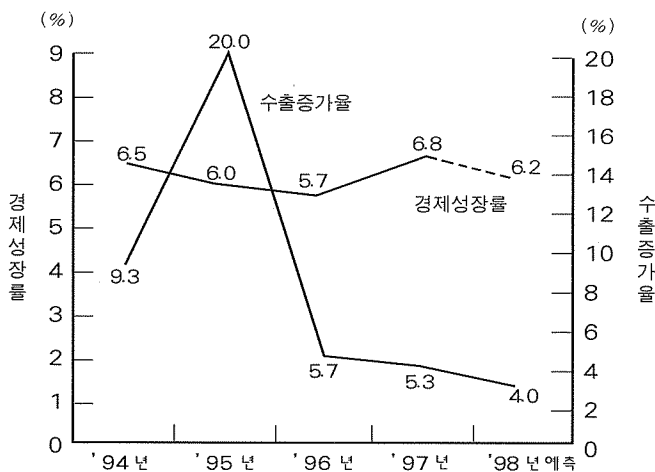
### 2) 대륙 생산이 확대 되고 있는 PC 관련기기

모니터, CD-ROM, 키보드, 마우스 4개품목은 해외생산비율이 이미 50%를 초과해 그후에도 해외생산이 증가할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경향속에서 CD-ROM의 예에서 보듯 말레이시아의 생산비율이 감소해 대륙생산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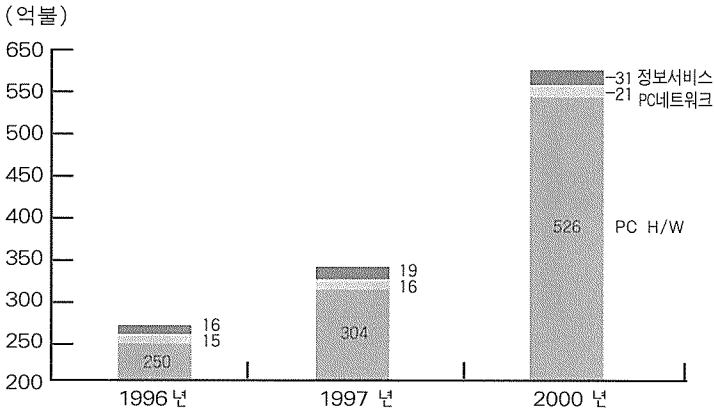
신규개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양산품은 점차 대륙으로 집약되어 나갈 방침을 갖고 있다. 대륙생산의 장점으로는 ① 소비자로서의 판매처 ② 아세안 지구보다도 더욱 코스트 경쟁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마더보드에서 볼수 있듯이 한때 30-40% 까지

###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IT산업 제품의 현황과 전망>



증가한 해외생산 비율이 98년에는 30% 정도까지 감소하고 거꾸로 국내생산이 증가하는 현상도 보여진다.

이것은 탑재하는 CPU의 고기능화에 따라 그 패턴 변형의 유연성, 엄격한 품질조건 등에 대응할 필요 때문이다.

### 3) 전자산업의 금후 방향

이렇게 수년간 PC관련제품의 생산으로 성장한 대만경제도 미국의 저가격 PC에 의해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다.

PC 및 관련제품의 생산액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3위를 확보해 '97년에는 이들 H/W의 총생산액에서 304억불(해외생산분 포함)로 전년대비 21.4%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생산비율은 서서히 저하해 '95년의 72%가 '96년에는 68%, '97년에는 62%로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는

H/W(천대)생산액을 526억불로 예측하고 있으나, 이 시점에서 국내생산은 52%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고부가가치제품은 국내에서, 저가제품은 해외에서라고 하는 생산구조는 점차 확대일로에 있어 금후의 국내 공동화가 우려된다.

이에 금후에는 인터넷 소프트로 대표되는 S/W개발에의 대형

투자 및 반도체 산업의 확충, LCD산업의 본격화 등주요부품을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일체의 국가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해갈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나아가 3C (통신, 컴퓨터, 컨슈머)를 융합한 멀티미디어를 염두에 두고 기술도입과 개발을 지향하면서, 현단계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대응방향에 주시하고 있다.

### 3. 전자공업의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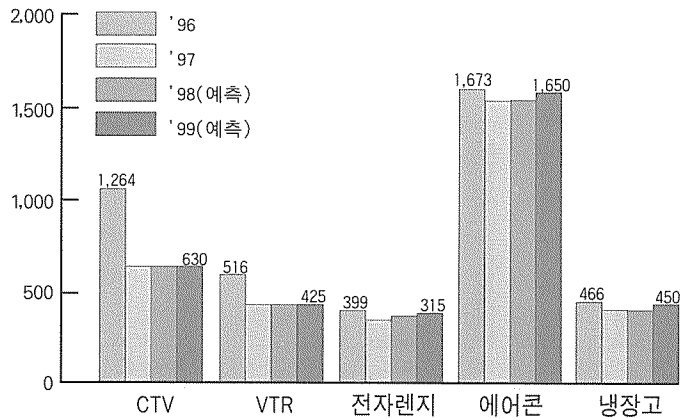
#### 1) 주요기기 (세트)의 생산상황

- 성장이 멈춘 가정용기기/성장할 계속하는 PC관련 기기 -

#### ① 가정용

C-TV, VTR은 감소하고 가전제품은 담보상태로 금후에는

<가정용기기의 생산대수>





DVD제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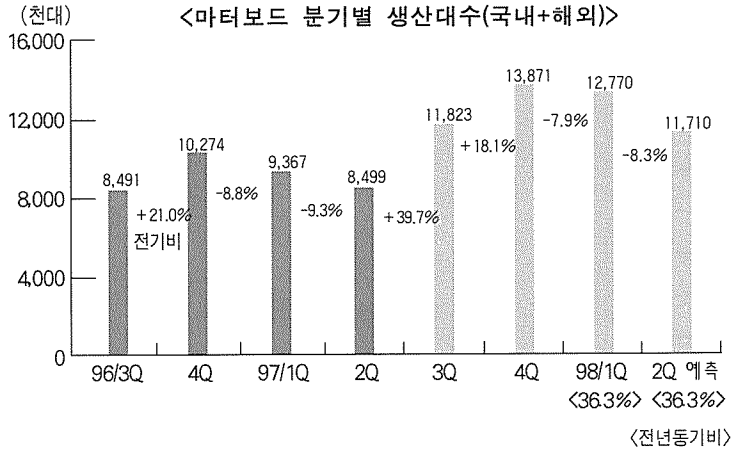
대만의 영상기기생산은 PC·모니터의 설계·생산(대륙에의 이전이 진행중)을 중심으로 정보기기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기대되는 DVD는 '98년부터 생산이 시작되는데, 현단계에서는 주요부품의 확보란으로 생산동향은 분명치 않으나 2-3년후에는 판명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렌지, 에어컨,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은 '97년에 생산이 하락하였으나, 금후에는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② 통신기기

수요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휴대전화단말은 현재 수입품으로 대응하고 있다.

'98년부터 현지 메이커에 의



한 생산이 계획되어 있으며 그 수량은 '98년 3만대 '99년에는 20만대이다. 코드레스폰, 다기능 전화기는 '9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③ 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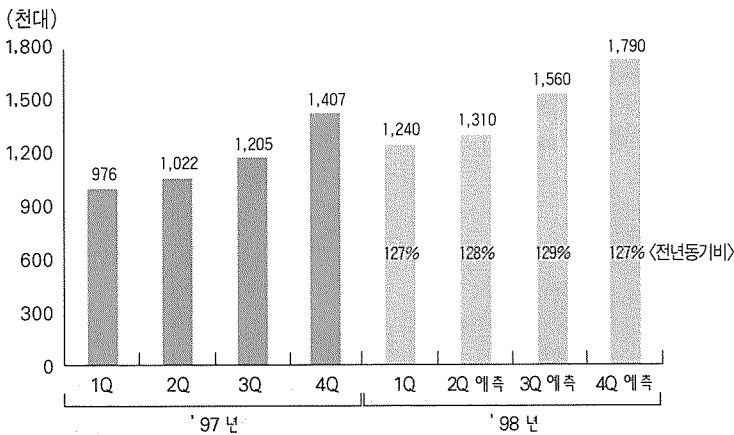
'97년 PC 생산대수는 13,745천대 (데스크탑 PC:9,135천대, 노트북 PC:4,610천대)였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데스크탑 PC는 156%가, 노트북 PC는 122%로 계속 신장되고 있다.

노트북 PC는 100% 국내생산으로 2000년까지의 예측은 연간 30% 증가한 10,000천대이며, 데스크탑 PC는 해외생산비율을 확실히 증가시켜 '96년의 14%에서 '97년에는 20%까지 높이고 있다.

또, 특기할 만한 점은 자사브랜드제품의 비율이 저하하고, 유럽 중심의 OEM/ODM 제품이 현저히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노트북 PC의 생산추이>



④ 마더보드

'97년 마더보드의 국내생산대수는 26,100천대 (전년대비 139%증가)로 여기에 해외생산분을 포함하면 총생산대수는 43,560천대(전년대비 137%증가)가 된다.

'98년 1/4분기에는 저가경쟁과 신기종의 투입 등 예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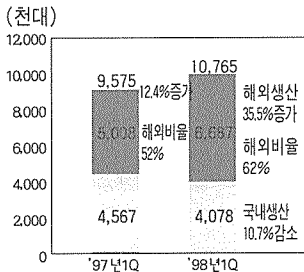
다른 패턴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36%증가에 머물렀다.

금후, CPU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으로 인해 국내생산비율은 70%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모니터**

'97년의 생산대수는 41,195천대(전년대비 118%증가)로 이중 54%는 해외생산이다. 해외생산 비율은 가속적으로 상승해 '98년 제 1/4분기 실적은 62%까지 올라갔다.

<모니터 생산대수(국내:해외)>



과잉재고의 정리 등으로 가격이 하락해 이익률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코스트를 찾아 대륙생산이 더한층 증가하고 있다.

**(2) 전자부품의 생산상황**

**① 대륙으로 이전하는 일본계 부품메이커**

대만에서의 전자부품생산은 반도체, LCD 등의 주요 부품을 제외하면 점점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세트 생산의 대륙으로의 이전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대륙에서는 일본계 전자부품의 진출을 환영하고 있으며 이를 중국제 (일본계 로컬)로 간주하고 있다.

**② 세트메이커와 함께 대륙으로 진출하는 로컬 부품 메이커**

대형 PC메이커는 대륙으로 생산을 이전할 때 로컬 부품메이커들이 그룹을 만들어 이전하는 경우가 눈에 띄고 있다.

대만계 부품메이커는 세트메이커와 가까운 곳에 진출하여 공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의 생산형태는 하이엔드 부품에의 대응강화와 다품종·코스트 및 스피드 대응을 무기로 활약의 장을 넓히고 있다.

**③ 대만 로컬 부품기업의 일본인 기술자 채용**

최근 대만기업의 일본인 기술자 채용이 눈에 띄고 있다. 그들은 개발 노하우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일본계 세트메이커와의 거래시 세일즈 엔지니어로서 커뮤니케이션 강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